

정부의 획일적인 석탄감산정책 중지 촉구 건의안

| | |
|----------|-----|
| 의안 번호 | 247 |
|----------|-----|

발의년월일 : '95. 12. 19

발 의 자 : 전세영의원 외 8인

1. 주 문

정부에서는 현재 가행중인 탄광의 여러가지 작업여건, 품질, 기업성, 경쟁력등 제반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탄광별로 일정비율의 석탄감산정책을 강요하고 있는등, 실로 여건을 무시한 정부의 획일적인 석탄감산정책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에도 불구하고, 탄광업체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작업여건, 채탄 및 운반시설의 개선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오고 있는 우리 삼척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소의 국·민영 탄광에 대하여, 또다시 감산을 요구하는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삼척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경동, 석공 도계광업소는 무연탄 열량에서 부터, 채탄시설, 앞으로의 판매여건등 국내 최대의 운반 및 시설여건을 갖춘 광산으로써,

평균 열량 5000kcal 이상의 무연탄 을 생산하고 있으며,
판매 또한 공업용, 민수용등 다양하여 체화가 없는 광산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수요처가 요구하는 열량이하의
무연탄 생산 광산이, 스스로 합리화하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도외시한 채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강력한 집단반발에 밀려,
현 수준에서 계속 수매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의의 지역광산에 감산을 요구하는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정부 석탄감산정책에 대하여,
10만삼척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삼척시의회는
지역경제회생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수호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우리 삼척시 소재 두개광산 근로자의 회사를 살리기 위한
생산성향상등 경영 정상화의 자구노력에 배치되는
정부의 획일적인 감산요구를 이제는 더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계량적인 수치조정에만 급급한
구태의 석탄수급정책에서 과감히 탈피,
합리적 석탄생산 및 수급조절을 위하여,

품질, 작업여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채탄시설의 현대화, 무연탄의 안정적 공급처등이 확보되어 있는,
우리시 소재 (주) 경동, 석공 도계광업소에 대하여,

시설·작업여건, 품질등이 열악한 타지역광산과 일정한 비율의
획일적인 감산강요등 일련의 행위를 즉각 중지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 제안이유

최근 정부에서 가행중인 탄광의 여러가지 작업여건, 품질, 기업성, 경쟁력등 제반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획일적으로 일정비율의 석탄 감산정책을 강요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품질, 채탄시설의 기계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안정적 공급처가 확보되어 있는

우리시 소재 (주) 경동, 석공 도계광업소에 대하여 선의의 감산을
강요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정부의 부당한 석탄감산정책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